

#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 주제 개요

주제	가족의 의미
학습 목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고 주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분석한 후, 자신과 가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차시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시 읽기 전 점검하기(어휘 학습, 배경지식 활성화) + 글 내용 확인하기 1(인물의 상황과 성격 파악, 읽기 전략 활용하기, 형식상의 특징 이해) (1/3)</li><li>• 2차시 글 내용 확인하기 2(구체적 내용 파악하기) (2/3)</li><li>• 3차시 나의 삶과 연계하기 + 찾아 읽기 (3/3)</li><li>• 자기 주도 학습하기</li></ul>
제재 목록	박민규(2013), <i>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i> (pp.69-93), 박민규(2013), 카스테라, 문학동네.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실국05-0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교양을 함양한다.
지도 시 유의점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과 나의 관계를 성찰하기 위해서 선택한 텍스트는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이다. 이 소설은 IMF 경제 위기 속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과 같은 감동을 자아내는 글과 비교하여 탐구함으로써, 가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li><li>• 읽기 전 점검하기 활동을 위해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수업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한다.</li><li>•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데 주안점을 둔 단원으로, 작품을 읽으며 인물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li><li>• 학생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ul>


## ● 단원 개관

- 본 단원은 학생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했다. 흔히 가족 간의 애뜻한 사랑이나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등의 가족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어서 이후에 바뀌는 것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거나, 억압적인 가족 제도 자체를 긍정하고 견디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보다는 엄혹한 경제 현실 속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족 이야기를 제재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박민규)는 2004년의 가장 좋은 소설(작가, 평론가 설문)로 선정된 단편소설로서, 학생들은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나’와 ‘아버지’를 통해 가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나의 삶과 연계하기’와 ‘찾아 읽기 활동’에서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 ‘엄마를 부탁해(신경숙)’와 같은 글과 비교하면서, 가족 서사가 지닌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단원을 통해 ‘[12실국05-02] 독서와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교양을 함양한다’라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 읽기 전 점검하기

### 어휘 학습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는 어려운 어휘들이 거의 없지만, 몇몇 단어들은 학생 입장이 사전을 활용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예로 든 후 학생 스스로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뜻을 찾도록 지도한다. 또한, 소설을 읽으면서 뜻이 모호한 단어가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학생 활동지 [활동 1]에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어휘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 나온 주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활용하여 파악하여 보자.

\*상념(想念):

[작품 중 문장]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상고(商高):

[작품 중 문장] 상고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에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상사(商社):

[작품 중 문장] 여하튼 무슨 상사(商社)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공사(公社):

[작품 중 문장]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고학(苦學):

[작품 중 문장] 고학을 했던 담임은 비교적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부유(浮遊/浮游):


[작품 중 문장] 그 속에서 마치 부유하는 미역줄기와도 같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일쑤였다.

### 교사 설명의 예

- 상념(想念):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 상고(商高): ‘상업 고등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
  - 상사(商社):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상업상의 결사. 이에는 무역상 조합, 통상 회사, 거래소 따위가 있다.
  - 공사(公社):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으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이 면제된다. 서울 지하철 공사도 여기에 속한다.
  - 고학(苦學):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배움.
  - 부유(浮遊/浮游):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 이 밖의 어휘에 대해서는 글을 읽으며 학생이 스스로 뜻을 찾아 문장 속 문맥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배경지식 활성화

- 1997년 IMF 구제 금융, 푸시맨 아르바이트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시절에 위기를 겪고 해체되어 가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IMF 구제 금융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IMF 경제위기로 추웠던 그 겨울의 이야기(1997년)’<sup>55)</sup>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한 후, 이와 관련하여 IMF 구제 금융 이후 사회의 풍토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1990년대 아르바이트였던 지하철 푸시맨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활동 시 유의점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의 원인, 과정 등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후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할 때,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탐구할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1차시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차시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로 추웠던 그 겨울의 이야기(1997년)’ [KBS다큐극장] 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사회의 풍토나 일반 국민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학생 활동지 [활동 2-1]에 적어 보게 한다.

55) KBS다큐극장, IMF 경제위기로 추웠던 그 겨울의 이야기(1997년).  
 (<https://www.youtube.com/watch?v=07Qz7EFxIMY>)

활동 2-1



예시답안

사회 풍토의 변화	일반 국민들의 변화
정년을 보장해 주는 회사 문화가 사라졌다.	안정적인 직업(의사,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
많은 실직자와 노숙자가 양산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의 금 모으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고, 인수 합병이 진행되는 등 기업 구조 조정이 크게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리게 되었다.

교사 설명의 예

예시 답안으로 제시된 내용 이외에, 다양한 삶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정리함으로써 소설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2-2**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 나온 1990년대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예시답안

푸시맨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만원 전철 안으로 승객들을 힘으로 밀어 넣는 아르바이트다. 당시로서는 학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알바였지만 몸만 달아도 성추행으로 고발되는 현 세태에 비춰보면 불특정 승객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서 전철 문이 닫히도록 돕는 푸시맨 알바는 당시의 교통 상황을 잘 말해 준다.<sup>56)</sup>

## 교사 설명의 예

지하철 푸시맨은 오늘날 접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설명 참고 자료]

1호선은 예나 지금이나 수도권 서민들의 귀중한 발이자 동맥이다. 서울을 오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수단이기에 아무리 붐비고 부대껴도 힘으로 버티고 렀다. ‘지옥철’의 시작이 여기였다. 객실 1량에 정원의 4~5배인 500~600명씩 들어차 아웅성치던 시절도 있었다. 1990년대에는 승강장에서 승객을 밀어 넣는 ‘푸시맨’이 맹활약했다. 198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신도림역이 새로 생기면서 혼잡이 극에 달했다. 환승 통로에서도 사람들은 떼밀리듯 물결처럼 흘러갔다. 1호선과 2호선을 갈아타는 신도림역은 서울에서 인천·수원으로 갈라지는 구로역과 더불어 지금은 곳곳에 많아진 환승역의 효시다.<sup>57)</sup>

### 교사용 TIP

읽기 전 활동이므로 학생 자신이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 활동 후에 교사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음.

56) 한명섭(2020), 지하철 알바 '푸시맨',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089>)

57) 차준철(2020), [여적]지하철 1호선, 경향신문([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22044005&nlv#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22044005&nlv#c2b))

## 읽기 중 활동하기 1

### ☞ 인물의 상황이나 성격 파악하기

- 소설 독해 과정에서 읽기 전략 활용하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목의 의미 상상하기,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대해 공감하기, 인물이나 필자의 개인적 ·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등의 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 메모하며 읽기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나’와 아버지, 코치 형 정도이다. 등장인물의 상황과 각 인물이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파악하여 인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 형식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읽기

\* 소재목을 달아 여러 장으로 나눔.

- 나의 산수
-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 부근의 어느 지붕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단락과 단락 사이를 한 줄씩 띄움.

\*대화와 지문을 구분하지 않고(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통합하여 서술함.

[형식상 특징의 효과] 주인공 ‘나’의 복잡한 내면 의식 속으로 독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깊이의 아이러니를 추구하지 않고 표면의 의식 위를 미끄러지는 박민규식 스타일이라고 평가기도 함.<sup>58)</sup> 다시 말해, 가족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이면서도, 이를 독자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글을 구성함.

### 교사용 TIP

이 소설은 형식상의 특징이 다른 소설과 다른 점이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서 읽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58) 손정수(2005), 뒤돌아보지 않는 오르페우스, 강. p. 387.

**활동 3** 제목의 의미 상상하기,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대해 공감하기, 인물이나 필자의 개인적·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등의 읽기 전략을 활용하며 소설을 읽어 보자.

3-1.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자.

3-2. 소설에 드러난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을 파악해 보고, 공감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이유를 포함하여 기술해 보자.

3-3.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사회의 풍토를 떠올려 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감상해 보자.

### 교사 설명의 예

3-1.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자.

이 소설의 제목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린의 말이기도 하다. 이 기린은 맥락상 주인공의 아버지로 해석된다. 플랫폼을 거니는 기린은 도시적 삶의 분위기와 어울릴 수 없는 이미지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한, 악하고 슬픈 듯한 모습의 기린은 건디기 어려운 현실에서 힘들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유사하다.

기린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이해했을 때 예상치 못한 한마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기린이 아버지의 환상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린은 굳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이는 아버지가 무능하고 나약하여 현실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기린의 환상은 무기력하고 허망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다.

3-2. 소설에 드러난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을 파악해 보고, 공감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이유를 포함하여 기술해 보자.

편의점, 주유소, 푸시맨 등의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면 평범해 보이는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인물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그저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 ‘나’의 경우, 투덜투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유머러스한 태도로 그러한 상황을 곳곳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3-3.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사회의 풍토에 대한 이해와 관련지어서 이 소설을 감상해 보자.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남긴 채 아버지가 가출을 하는 상황이 소설 속에 나타난다.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행동과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제목의 의미 상상하기’의 경우, 이 소설을 읽기 전과 읽는 중간, 그리고 읽은 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메모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읽기 자료를 읽으며 학생들이 학생 활동지 [활동4]를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 )의 안에 들어갈 내용을 글을 읽으며 작성하고, [ ]의 안내에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스스로 파악하여 기술한다.

**활동 4**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으며 인물의 상황과 성격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

등장인물		상황/성격/인물 간의 관계
나	상황	( ) 고등학생. 중학교 때 아버지 직장에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의 고달픔에 대해 알게 됨. 이후 주유소와 편의점 등의 저임금 ‘알바’를 하다가, 시급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 )이 됨. 어머니가 쓰러지고 ( )가 실종된 후에 푸시맨 ‘알바’를 하던 중에 플랫폼에서 ( )을 발견함.
	성격	[일이나 가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주인공 ‘나’가 드러내는 태도에 주목하기] 저임금 ( )에 불만을 나타내고, 가정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 )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고통에 지나치게 ( )하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 유머와 위트로 곳곳하게 살아감.
아버지	상황	노모(老母)를 모시고 있는 가장으로서, 허름한 상사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 그의 아내는 청소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하기도 함. 매일 ( )로 출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들과 만남.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 )함.
	성격	[아내의 입원, 지하철과 회사에서의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격에 주목하기] 아내의 입원, 지하철과 회사에서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무기력하고 ( )한 모습을 보임.
코치 형	상황	‘알바’계의 마당발로서, 후배들에게 코치하기를 좋아함. ‘나’에게 여러 가지 ‘알바’를 추천해준 동네 형. 나중에 알바를 정리하고 ( )의 직원이 됨.
	성격	[코치 형의 변신과 주인공 ‘나’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기] 변화하는 세대에 빠르게 (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주인공 ‘나’에게 ( )적인 태도를 취함.

## 예시답안

등장인물		상황/성격/인물 간의 관계
나	상황	( <b>상업계</b> ) 고등학생. 중학교 때 아버지 직장에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의 고달픔에 대해 알게 됨. 이후 주유소와 편의점 등의 저임금 ‘알바’를 하다가, 시급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 <b>지하철 푸시맨</b> )이 됨. 어머니가 쓰러지고 ( <b>아버지</b> )가 실종된 후에 푸시맨 ‘알바’를 하던 중에 플랫폼에서 ( <b>기린</b> )을 발견함.
	성격	저임금 ( <b>알바</b> )에 불만을 나타내고, 가정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 <b>가출</b> )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고통에 지나치게 ( <b>집착</b> )하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 유머와 위트로 곳곳하게 살아감.
아버지	상황	노모(老母)를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서, 허름한 상사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 그의 아내는 청소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하기도 함. 매일 ( <b>지하철</b> )로 출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들과 만남.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 <b>가출</b> )함.
	성격	아내의 입원, 지하철과 회사에서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무기력하고 ( <b>무능력</b> )한 모습을 보임.
코치 형	상황	‘알바’계의 마당발로서, 후배들에게 코치하기를 좋아함. ‘나’에게 여러 가지 ‘알바’를 추천해준 동네 형. 나중에 알바를 정리하고 ( <b>떴다방</b> )의 직원이 됨.
	성격	변화하는 세태에 빠르게 ( <b>적응</b>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주인공 ‘나’에게 ( <b>호의</b> )적인 태도를 취함.

## 교사용 TIP

‘떴다방’과 같이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에 대한 지도 방법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교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백과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키백과와 같은 오픈형 백과사전의 경우, 출처와 근거를 살피면서 편향된 내용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글 내용 확인하기

- 인물의 상황과 성격 등을 정리하며 소설을 읽었다면, 소설을 읽은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읽기  
이 작품은 소제목을 달아 여러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므로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파악해 본다.

➡ 학생 활동지 [활동 5]에서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건 중심으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5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주요 내용 파악하기

#### 5-1. 나의 산수

- 주인공 ‘나’가 ‘화성인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름 방학 내내 더위와 싸우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 O / X )
- 아버지는 시간당 삼천오백 원으로 쉼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는 상가 청소 일을 한다. ( O / X )
- 주인공 ‘나’는 코치 형으로부터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서는 “덥기만 덥고, 짜디 짠, 지구.”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표시한다. ( O / X )

#### 5-2.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할 때, 코치 형은 지하철 승객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 ) 같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나’에게 코치 형은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을 언급하며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반문한다. ( O / X )

#### 5-3. 이 부근의 어느 지붕

- 여름 방학이 끝나고서 나는 푸시맨 알바를 완전히 그만두고 학교생활에 전념했다. ( O / X )
-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초원의 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 )처럼-멍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 5-4.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혹한의 겨울이 되자 ‘나’는 태양과 가까운 금성인을 부러워한다. ( O / X )
- 아버지가 사라진 후, 코치 형은 ‘나’ 대신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두 달 치를 받아 내었다. ( O / X )
- 어느 완연한 봄날 ‘나’는 푸시맨 일을 마치고 역사 벤치에서 쉬다가 ( )을 목격한다.

## 예시답안

### 5-1. 나의 산수

- 주인공 ‘나’가 ‘화성인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름 방학 내내 더위와 싸우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 / X)
- 아버지는 시간당 삼천오백 원으로 섬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는 상가 청소 일을 한다. (○ / X)
- 주인공 ‘나’는 코치 형으로부터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서는 “덥기만 덥고, 짜디 짠, 지구.”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표시한다. (○ / X) - 주인공 ‘나’는 시간당 1000원을 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며 “글썸 천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 짠, 지구.”라고 생각한다.

### 5-2.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할 때, 코치 형은 지하철 승객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물) 같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나’에게 코치 형은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을 언급하며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반문한다. (○ / X)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나’에게 코치 형이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을 떠올린 것은 코치 형이 아니라 ‘나’이다.

### 5-3. 이 부근의 어느 지붕

- 여름 방학이 끝나고서 나는 푸시맨 알바를 완전히 그만두고 학교생활에 전념했다. (○ / X) -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는 푸시맨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에 나가지만, 어머니의 입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담임 선생님의 양해를 얻어 다시 푸시맨 알바를 시작한다.
-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초원의 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타조)처럼-멍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 5-4.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혹한의 겨울이 되자 ‘나’는 태양과 가까운 금성인을 부러워한다. (○ / X)
- 아버지가 사라진 후, 코치 형은 ‘나’ 대신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두 달 치를 받아 내었다. (○ / X) - 아버지가 사라진 후, 주인공 ‘나’가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두 달 치를 받아 내었다.
- 어느 완연한 봄날 ‘나’는 푸시맨 일을 마치고 역사 벤치에서 쉬다가 (기린)을 목격한다.

교사용



TIP

계절에 대한 주인공 ‘나’의 태도와 사건 진행 양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하는 것도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소설 속 첫 계절은 여름이다. 짜증 나는 더위 속에서 주유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는 보수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 지하철 푸시맨 일을 하면서 목도한 인류의 참상, 그리고 무기력한 아버지를 대면한 것도 여름이다.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이 아니다. 소멸과 죽음의 가을이다.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사라질 엄마의 봉급, 여전한 할머니의 약값, 발생될 엄마의 치료비...” 결국 나는 1교시를 빼먹고 푸시맨 일을 다시 하게 된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코치 형은 알바를 정리하고 뒤통방의 직원이 되고, 감독은 결혼 사기를 당한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가출을 한다.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다가 ‘금성인과 화성인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근사한 계절’인 봄이 오자 어머니의 병에 차도가 생긴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만 빼고는 집안 사정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읽기 중 활동하기 2

등장인물 평가하기

학생 활동지 [활동 6]에서는 주인공 ‘나’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 주인공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주가 되겠지만,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시 유의점

- 주인공 ‘나’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파악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찰하는 이후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6** 다음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서 아버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주인공 ‘나’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 적어 보자.

	상황	이미지
1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쓰러졌을 때	초원의 북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타조
2	출근 길 사람들 속의 아버지	부유하는 미역 줄기
3	아버지를 열차 안으로 밀 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4	아버지의 실종 이후 환상	기린

**예시답안**

주인공 ‘나’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적으로도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초원의 북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타조’로 느낀 부분이나, 출근 지하철에서의 아버지를 ‘부유하는 미역 줄기’처럼 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삶의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한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 ‘나’의 생각에는 유머와 위트가 배어 있기까지 하다. 이는 고통을 견뎌 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교사 설명의 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접하는 대중적이고 익숙한 가족 서사는 일상적인 애증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동을 결론으로 내세우는 휴먼 스토리의 성격을 지닌다. 역경의 극복이나 가족의 희생을 소재로 한 감동의 가족 서사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현재적 고통이 일상화된 시기에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족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가족 서사이면서도 기존의 가족 서사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이 소설을 통해 주인공 ‘나’가 보여 준 가족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후 활동에서 학생 자신이 가족에 대해 성찰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념적으로 부모님의 희생이나 가족 간의 사랑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읽은 후 활동하기

#### ☞ 나의 삶과 연계하기

- ➡ 학생 활동지 [활동 7]에서는 가족이 학생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성찰하는데 필요한 사전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 활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자기만의 사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국어사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재정의한 사전은 일상적 의사소통과 상투적인 세계 이해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이력과 내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사전은 내 내면의 고유한 무늬를 보여 주고 내가 살아온 삶의 독특성을 설명해 준다.<sup>59)</sup> 또한 특정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계관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재정의한 단어를 조별로 나누면서 ‘우리만의 단어 사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 활동 시 유의점

- ‘우리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을 지닌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9) 진은영, 김경희(2019), 문학, 내 마음의 무늬 읽기, 엑스북스, p. 248.

## 활동 7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_관심 분야 단어

다음은 진은영 시인의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시인은 ‘봄, 슬픔, 자본주의, 문학’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 시를 감상하고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떠올려 보고, 해당 분야의 단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정의를 내려 보자.

봄, 놀라서 뒷걸음질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슬픔

물에 불은 나무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백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sup>60)</sup>

-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진은영), p. 14.

1.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생각

2.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

60) 진은영(2003),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 지성사, p.14.

### 예시답안

1. 시에서 다시 정의 내린 내용이 비유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슬픔을 ‘물에 붙은 나무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물에 붙은 나무토막을 통해 구체화되고, 거기에 더해 다시 더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2. 나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 내려 보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내린 정의이다.  
‘교육: 나만의 지식을 지우는 지우개’

### 교사 설명의 예

사전에 나온 정의가 아닌, 학생 자신이 새롭게 정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시를 통해서도 감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와서 예로 들어 주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내린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나만의 국어사전 만들기 결과를 발표할 때, 개별적으로 발표를 모두 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조별 토론(4인 1조)을 거쳐서 베스트로 선정된 단어를 조별로 뽑아서 조장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빔프로젝터로 PPT화면을 띄워 놓고, 학생들이 재정의한 단어를 직접 입력한 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 ➡ 학생 활동지 [활동 8]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족이 학생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등 여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짧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 ☞ 활동 시 유의점

- 이 단원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될 것이므로,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짧은 글쓰기의 경우, 가족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활동 8**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_가족 관련 단어

8\_1. 본인이 재정의하고 싶은 단어를 선택하여 기술하시오. 예시된 단어 중에 없다면, 직접 적어서 재정의하시오.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어휘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오빠: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과 관련된 어휘

우리 집:

가족:

가족 여행:

결혼:

이혼:

8\_2. 짧은 글쓰기: 1번 활동을 바탕으로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다음을 주제로 짧은 글을 써 보자.

\*\*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 예시답안

### 8\_1

어머니: 잃어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아는 존재

결혼: 해도 걱정 안 하면 불안

### 8\_2

‘나의 가족은 소중하다.’ 누군가 그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도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들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부모님은 지금껏 나를 키워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니, 가족은 굴레가 될 수도 있겠다. 부모님의 기대는 늘 나를 압박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될 일은 없다고 하신다. 그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 교사 설명의 예

학생들이 가족과 관련된 재정의 활동을 자유롭게 실행하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학생들의 생각 중 통념적인 가족에 대한 생각과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을 권유해야 한다. 가령, 한 학생이 어머니는 늘 나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했다면, ‘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과 관련지으면서 내밀한 갈등, 사연 등을 담은 생각을 전개하는 정의에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짧은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활동 6에서 ‘나’가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떠올려 보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 후 활동을 하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단원의 주제를 다루는 핵심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글로 담아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사용 TIP

학생 입장에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찾아 읽기/ 자기 주도 학습하기

### ☞ 가족 이야기를 다룬 글 찾아 읽기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암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족의 삶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허물어지는 가족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에는 이러한 양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 또 다른 가족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엄마를 부탁해(신경숙)’를 읽고, 이 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과 이 소설에서 말하는 ‘엄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찾아읽기** ‘엄마를 부탁해(신경숙)’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1. 소설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1-1.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은?

1-2. 중심 사건은?

1-3. 중심인물(엄마)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기대는?

#### 2.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과 이 소설에서 말하는 ‘엄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교해 보자.

## 예시답안

‘엄마를 부탁해(신경숙)’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1. 소설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1-1.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은?

- 엄마: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결혼을 함. 고된 집안일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2남 2녀를 잘 키워 냄. 심한 두통과 약간의 치매가 있음. 자녀에게 매우 희생적임.
- 아들, 딸: 자신들에게 헌신적인 엄마에 대해서 연민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함.
- 남편: 방랑벽이 있음.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

#### 1-2. 중심 사건은?

엄마가 서울에 사는 큰아들 집을 다녀오는 길에 지하철 서울역에서 실종됨. 온 가족이 엄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함. 그 과정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공기처럼 낮익은 존재였던 엄마의 빈자리를 확인함.

#### 1-3. 중심인물(엄마)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기대는?

엄마는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 교육에 중요하게 여김. 아들과 딸은 자신들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엄마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낌.

### 2.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과 이 소설에서 말하는 ‘엄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교해 보자.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모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가족에 대한 엄마의 희생은 감사와 예찬의 대상이 된다. 이 소설에서는 ‘엄마’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엄마’라는 역할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욕망과 꿈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가 드러난다.

## 교사 설명의 예

이 작품은 총 4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1장\_큰딸, 2장\_큰아들, 3장\_아버지의 회상을 통해 엄마의 모습이 다시 기억된다. 4장에서는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이 소설을 읽은 감상을 이야기할 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소설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 남편과 자식밖에 모르고 산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 이면에 존재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만의 욕구와 방향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소설이다.



장편소설이지만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과 내용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로 선정하여 읽게 하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❶ 자기 주도 학습하기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통해 해체되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 대해 성찰하였다. 이제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과 비교를 통해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자유롭게 감상하면서, 이를 문학에 대한 이해 전반으로 확장하여 왜 근대 이후의 문학이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라는 대중적인 익숙함에서 탈피하고자 했는가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한다.

➡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을 찾아서 읽고, 이 가족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감동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sup>61)</sup>’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감동적인 면을 적어 보자.

[줄거리] 1972년부터 해마다 설날 그믐날 밤에 ‘북해정’이라는 식당에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소바 1그릇을 주문해서 먹는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족이 안쓰러워서 사장의 부인이 한 그릇은 서비스로 주자고 말하지만, 사장은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도 한 그릇에 면 한 그릇 반을 넣어준다. 그러던 어느 해에 세 모자가 소바 2그릇을 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로 8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 세 모자는 힘겹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고, 그 모든 빚을 모두 갚은 날, 소바 두 그릇을 주문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세 모자는 찾아오지 않는다. ‘북해정’이라는 식당을 새로 단장할 때도, 주인은 예전에 세 모자가 앉았던 테이블만은 그대로 둔다. 그러던 어느 설날 그믐날, 세 모자가 다시 찾아온다. 두 아들은 이미 성공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소바 3그릇을 주문한다. 식당 부부는 기다리던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 예시답안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은 한 가족에게 닥친 커다란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야기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정직하게 돈을 갚아 가면서, 매년 마지막 날에 소박한 외식을 의식처럼 치르는 가족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주인공들의 의지와 정직성, 가족 간의 사랑만으로도 감동적이다. 그뿐 아니라, 우동집 주인 부부가 보이는 태도 역시 인상적이다. 세 모자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단순하게 치부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응원하는 모습을 우동 한 그릇 반을 만드는 모습과 세 모자의 테이블을 늘 그대로 두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61) 구리 료헤이(2015), 우동 한그릇, 청조사, pp. 9~32.

☞ 다음 글을 읽고 학생들이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과 같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에 대한 감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다음 <참고 글>을 읽고,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과 같은 가족 이야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해 보자.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이야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휴먼 드라마나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지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시선을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게로 돌리고, 고통과 역경이라는 것을 노력하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해 ‘감동’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고통으로 물든 현재적 시간은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삶의 긍정적 의미라는 것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고통과 역경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은 늘 모든 문제가 ‘감동적으로’ 극복되는 세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등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강조될수록 현실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보다는 감동을 자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유령들(고봉준)<sup>62)</sup>. pp. 30-31. 내용을 참고하여 풀어씀.

## 예시답안

고난을 극복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에 대해서 무감해질 수 있다. ‘감동’의 이야기 속에서의 ‘고통’은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 이야기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가족의 빛은 모두 청산되고 두 아들은 모두 무던히 성장하여 사회에 안착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동의 드라마가 현실에서 재현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위의 <참고 글>에 나오는 표현대로 “문제는 고통과 역경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은 늘 모든 문제가 극복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등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강조될수록 현실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동의 서사가 현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교사용 TIP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을 인위적으로 <참고 글>의 입장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글이 함의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글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동 한 그릇’과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느 작품이 더 감동을 주는지(또는 공감이 되는지, 여운이 남는지 등)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추가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족’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2) 고봉준(2010), 유령들 : 고봉준 평론집, 천년의 시작, pp. 30-31.

## 학생 활동지



### 제목

###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활동 1**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 나온 주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활용하여 파악하여 보자.

\*상념(想念):

[작품 중 문장]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상고(商高):

[작품 중 문장] 상고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에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상사(商社):

[작품 중 문장] 여하튼 무슨 상사(商社)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공사(公社):

[작품 중 문장]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고학(苦學):

[작품 중 문장] 고학을 했던 답임은 비교적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부유(浮遊/浮游):

[작품 중 문장] 그 속에서 마치 부유하는 미역줄기와도 같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일쑤였다.

### 활동 2-1

사회 풍토의 변화	일반 국민들의 변화

**활동 2-2**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 나온 1990년대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활동 3** 제목의 의미 상상하기,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대해 공감하기, 인물이나 필자의 개인적·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지어 감상하기 등의 읽기 전략을 활용하며 소설을 읽어 보자.

3-1.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자

3-2. 소설에 드러난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을 파악해 보고, 공감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이유를 포함하여 기술해 보자.

3-3.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사회의 풍토를 떠올려 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감상해 보자.

**활동 4**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읽으며 인물의 상황과 성격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

등장인물		상황/성격/인물 간의 관계
나	상황	( ) 고등학생. 중학교 때 아버지 직장에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아버지의 고달픔에 대해 알게 됨. 이후 주유소와 편의점 등의 저임금 ‘알바’를 하다가, 시급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 )이 됨. 어머니가 쓰러지고 ( )가 실종된 후에 무시맨 ‘알바’를 하던 중에 플랫폼에서 ( )을 발견함.
	성격	[일이나 가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주인공 ‘나’가 드러내는 태도에 주목하기]  저임금 ( )에 불만을 나타내고, 가정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아버지의 ( )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고통에 지나치게 ( )하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 유머와 위트로 곳곳하게 살아감.
아버지	상황	노모(老母)를 모시고 있는 가장으로서, 허름한 상사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 그의 아내는 청소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입원하기도 함. 매일 ( )로 출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들과 만남.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 )함.
	성격	[아내의 입원, 지하철과 회사에서의 모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격에 주목하기]  아내의 입원, 지하철과 회사에서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무기력하고 ( )한 모습을 보임.
코치 형	상황	‘알바’계의 마당발로서, 후배들에게 코치하기를 좋아함. ‘나’에게 여러 가지 ‘알바’를 주선해 준 동네 형. 나중에 알바를 정리하고 ( )의 직원이 됨.
	성격	[코치 형의 변신과 주인공 ‘나’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기]  변화하는 세태에 빠르게 (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주인공 ‘나’에게 ( )적인 태도를 취함.

**활동 5**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주요 내용 파악하기

5-1. 나의 산수

- 주인공 ‘나’가 ‘화성인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름 방학 내내 더위와 싸우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 O / X )
- 아버지는 시간당 삼천오백 원으로 쉼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는 상가 청소 일을 한다. ( O / X )
- 주인공 ‘나’는 코치 형으로부터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서는 “덥기만 덥고, 짜디 짠, 지구.”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표시한다. ( O / X )

5-2.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할 때, 코치 형은 지하철 승객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 ) 같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 지하철 푸시맨 알바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나’에게 코치 형은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을 언급하며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반문한다. ( O / X )

5-3. 이 부근의 어느 지붕

- 여름 방학이 끝나고서 나는 푸시맨 알바를 완전히 그만두고 학교생활에 전념했다. ( O / X )
-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초원의 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 )처럼- 멍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5-4.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혹한의 겨울이 되자 ‘나’는 태양과 가까운 금성인을 부러워한다. ( O / X )
- 아버지가 사라진 후, 코치 형은 ‘나’ 대신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두 달 치를 받아 내었다. ( O / X )
- 어느 완연한 봄날 ‘나’는 푸시맨 일을 마치고 역사 벤치에서 쉬다가 ( )을 목격한다.

**활동 6** 다음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서 아버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주인공 ‘나’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 적어 보자.

	상황	이미지
1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쓰러졌을 때	초원의 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타조
2	출근 길 사람들 속의 아버지	부유하는 미역 줄기
3	아버지를 열차 안으로 밀 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4	아버지의 실종 이후 환상	기린

### 활동 7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_관심 분야 단어

다음은 진은영 시인의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시인은 '봄, 슬픔, 자본주의, 문학'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 시를 감상하고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떠올려 보고, 해당 분야의 단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정의를 내려 보자.

봄, 놀라서 뒷걸음질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슬픔  
물에 불은 나무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백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문학  
길을 잃고 홍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sup>63)</sup>

-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진은영). p. 14.

1.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생각

2.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

63) 진은영(2003),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 지성사. p. 14.

**활동 8**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_가족 관련 단어

8\_1. 본인이 재정의하고 싶은 단어를 선택하여 기술하시오. 예시된 단어 중에 없다면, 직접 적어서 재정의하시오.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어휘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오빠: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과 관련된 어휘

우리 집:  
가족:  
가족 여행:  
결혼:  
이혼:

8\_2. 짧은 글쓰기: 1번 활동을 바탕으로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다음을 주제로 짧은 글을 써 보자.

\*\*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 학생 활동지



### 제목 가족 이야기를 다룬 글 찾아 읽기

**찾아읽기** ‘엄마를 부탁해(신경숙)’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1. 소설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1-1. 등장인물의 상황과 성격은?

1-2. 중심 사건은?

1-3. 중심인물(엄마)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기대는?

2.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과 이 소설에서 말하는 ‘엄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교해 보자.

## 학생 활동지



## 제목

## 자기주도 학습하기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sup>64)</sup>에서 감동적인 면에 대해 적어 보자.

[줄거리] 1972년부터 해마다 선달 그믐달 밤에 ‘북해정’이라는 식당에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소바 1그릇을 주문해서 먹는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족이 안쓰러워서 사장의 부인이 한 그릇은 서비스로 주자고 말하지만, 사장은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도 한 그릇에 면 한 그릇 반을 넣어준다. 그러던 어느 해에 세 모자가 소바 2그릇을 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로 8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던 것이다. 세 모자는 힘겹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고, 그 모든 빚을 모두 갚은 날, 소바 두 그릇을 주문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세 모자는 찾아오지 않는다. ‘북해정’이라는 식당을 새로 단장할 때도, 주인은 예전에 세 모자가 앉았던 테이블만은 그대로 둔다. 그러던 어느 선달 그믐날, 세 모자가 다시 찾아온다. 두 아들은 이미 성공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소바 3그릇을 주문한다. 식당 부부는 기다리던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OO존’의 성공 비결을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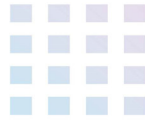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이야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휴먼 드라마나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지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시선을 ‘세계’가 아니라 ‘인간’에게로 돌리고, 고통과 역경이라는 것을 노력하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해 ‘감동’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고통으로 물든 현재적 시간은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삶의 긍정적 의미라는 것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문제는 고통과 역경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은 늘 모든 문제가 ‘감동적으로’ 극복되는 세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등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강조될수록 현실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보다는 감동을 자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유령들(고봉준)<sup>65)</sup>, pp. 30-31. 내용을 참고하여 풀어쓰.

64) 구리 료헤이(2015), 『우동 한그릇』, 청조사, pp. 9-32.

65) 고봉준(2010), 유령들 : 고봉준 평론집, 천년의 시작, pp. 30-31.

읽기자료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나의 산수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상고(商高)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마나 한 여자애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마나인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답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일터를 돌아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조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 원을, 편의점에선 천 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완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의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2천 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뭐야, 그럼 당신 자식에겐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못해도 2천 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글썄 천 원이라니. 덩기만 덩고, 짜디짤,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쩌냐? 좋아요. 편의점의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이랍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일하는 텐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야…… 오늘도 여자애 허벅질 만졌지 뭐냐……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 되고 말고를 떠나, 허벅질 만진다면 시간당 만 원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고작, 천 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굽혀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폐이가 세. 시간당 3천 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3천 원이오? 앞뒤 쥔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 산업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이었다. 좋구말구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지나, 비로소 화성에 다다른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있으나마나에 받으나마나, 지구여 안녕.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심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딱가리’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

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3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군. 코치 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算數)다. 웃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 만했는데, 결국 들어나마나가 돼버린 지 오래다. 나이 마흔다섯에 시간당 3천5백 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商社)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교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주는 심부름이었다.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근처의 골목을 서성이고 서성였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두운 복도와, 형광등과, 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外國)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다니.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브이(메탈리카가 사용한 기타의 모델명)와 같은 게 아닐까, 막연한 생각을 나는 했었다. 했는데, 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랬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數)였던 것이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 세상은 한 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단 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단 사실을. 넌 뭘 할 건데? 나? 글썄 요샌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인간예젠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물론 세상엔 수학(數學)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이다. 즉 높은 가치의 잎을 따먹듯-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디 엔드다. 어쨌든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演算)의 답을 보았거나,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즉 그런 셈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쥐’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중략]

###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주셔야겠지만, 그게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승객들은 모두 전철을 타야하고, 전철엔 이미 탈 자리가 없다. 타지 않으면, 늦는다. 신체의 안전선은 이곳이지만, 삶의 안전선은 전철 속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곳을 택하겠는가.

처음 열차가 들어오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차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정도의 거대한 동물이 파아, 하아, 플랫폼에 기어와 마치 구토물을 쏟아내듯 옆구리 찢고 사람들을 토해냈다. 아아, 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뭔가 댐 같은 것이 무너지는 광경이었고, 눈과 귀와 코를 통해 머릿속 가득 구토물이 차오르는 느낌

이었다. 야! 코치 형이 고함을 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도 놈의 먹이가 되었을 테지. 정신이 들고 보니, 놈의 옆구리가 흥건히 고여 있던 구토물을 다시금 빨아들이고 있었다. 발전(發電)이라도 일어날 기세였다. 힘! 그때 코치 형이 고함을 질렀다. 해서, 엉겁결에-영차, 영차 무언가 물컹하거나 무언가 딱딱한 것들을 마구 밀어 넣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어찌 내 입으로 그것이 인류(人類)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 열차가 출발하자 코치 형이 다가와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네. 심호흡을 크게 했지만 다리가 떨리긴 마찬가지였다. 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화물이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니? 알겠지? 알겠지, 에서 다시 열차가 들어왔으므로, 나는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파아, 하아. 의정부행이었던 두 번째 열차는, 아마도 두 배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이젠 마치, 전 인류가 아닌가.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안전선 밖의, 그러니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지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세 개의 넥타이핀과 두 개의 단추, 더불어 부러진 안경다리가 부상병의 목발처럼 텅굴고 있었다. 뿔뿔였다. 인류의 분실물들을 수거하며, 나는 비로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화성인들은 좋겠다. 참, 좋겠다.

일주일이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아침이면 전 인류의 참상을 목격하고, 오전의 짧은 잠, 이어지는 주유소 알바와 편의점. 온종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아프더니, 다음날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이 아팠고, 그 다음날엔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까지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온몸이 아파왔다. 이젠…… 시간당 3만 원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다시 불만에 사로잡혔지만, 지금 관두면 억울하지 않니? 코치 형의 코치도 과연 옳은 말이다 싶어 이를 악물고 출근을 계속했다. 어쩌면 피라미드의 건설 비결도 ‘억울함’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관두면 너무 억울해. 아마도 노예들의 산수란, 보다 그런 것이었겠지.

[중략]

결국 또 한 칸 신참에게 자리가 밀려, 나는 여덟 번째 승강구를 맡게 되었다. ‘8’. 노란색으로 박혀 있는 양각의 숫자를 내려다보다, 나는 문득 ‘나의 산수’를 떠올렸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얼핏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산수란 말 그대로 수(數)에 불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었다. 유난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파아, 하아. 그리고 여전히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압력에 의해 튕겨나왔는데, 그런가 했는데

아버지였다.

뒤통자, 일이 끝나면-옷을 전부 벗어던지고 근처의 화단으로 가 꽃이라도 뜯어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 아버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신설역까지 가야 하는 아버지를, 마치 처음 여자의 몸을 밀 때처럼, 그래서 잘, 못 밀고, 그래도 좀 밀었는데, 잘, 안 들어가고, 그랬다. 열차의 문이 닫혔다. 파아, 하아. 상체를 구부려 무릎에 손을 얹고, 나는 제법 숨을 몰아쉬었다. 파아, 하아. 어색한 표정으로 아버지는 어색해진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 계셨다. 그리고 잠깐, 넥타이를 땀 만큼의 짧은 시간이 그러나 절대 풀리지 않을 매듭으로, 우리 둘 사이를 엮으며 지나갔다. 그것은 무척 이상한 체험이었다. 매듭의 바깥은 더없이 소란스러운데, 아버지와 나 사이엔 우주의 고요, 같은 것이 고여 드는 기분이었다. 고요 속에서, 그러나 눈을 못 마주치는 우리의 결계를 넘어, 또다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 부근의 어느 지붕

정말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일을 끝내고, 코치 형과 나란히 역사(驛舍)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가 더욱 그랬다. 다리를 길게 뻗고 머릴 좀 더 젖히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약간의 현기증이 일기도 하지만, 즉 그래서 아, 지구가 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느낌이 나는 좋았다. 그래서 자주, 나는 벤치에 몸을 뉘었다. 아버지를 만난 그날도 그랬다.

승일아…… 이번엔 꼭 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열차가 들어왔는데, 흐름이 좋지 않음을 간파한 감독이 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힘! 힘! 물론 그 화물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 리도 없었지만 너무 거침없이 머릴 누르고, 막, 등을 팔굽으로 짊고, 밀고, 그랬다. 들어, 간다. 들어, 갔다. 들릴락 말락,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흉곽에서 어떤 미약한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파아, 하아. 하지만 흉곽을 닫아 열차는 자신의 폐부 속에 아버지의 소릴 가두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아무튼 고작, 러시아워 전철 따위의 폐부에 갇힌 소리나 호흡, 그런 기포와도 같이-답답하고

길고, 이상한 여름이었다. 형,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냐? 뭔가 아버지에 대한 얘길 하고 싶었는데, 전혀 뜻밖의 말들만 튀어나왔다. 뭐 좀 마실래? 그리고 코치 형이 뽑아준 미린다 한 잔을 마시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 후로 제법, 자주, 나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서서히 서로에게 어떤 면역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역이 생겨도 자체가 즐거울 리 없는 만남이었다. 나는 때로, 제대로 아버지를 밀어 넣기도 했고, 그건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 저 멀리 구름은 흘러가고, 나는 목이 말랐다.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방학이 끝나면서 푸시맨 생활도 끝이 났고,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2학기가 시작된 학교는 몹시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자리가 없어, 이구동성으로 선배들은 얘기했다. 이구동성이 아니어도, 세상의 불황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자격증도 소용없고, 또, 정보산업고로 개명하면 취업률이 오를 거란 예상도 그러나 모두 루머에 불과한 것이었다. 선배들은 낙심했고,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나는 목이 말랐다. 세상은 하나의 열차다. 한 량의 정원은 180명, 그러나 실은 4백 명이 타야만 한다-답답하고

길고, 이상한 여름은 끝이 났지만 대신 길고, 이상한 가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엄마가 쓰러졌다. 상가 건물의 청소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로인지 뭔지 아무튼 쓰러졌다. 다행히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러나 확실한 원인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신경인지 어딘지가 나빠질 만큼 나빠졌다는 얘기였다. 검사를 계속해봅시다.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검사는 계속해야만 하겠지.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엄만 어때? 대답 대신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초원의 복판에서 갑자기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타조처럼-멍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실은 그동안 그나마 아주 잘 걸어왔다는, 아니 달려온 거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다. 사라질 엄마의 봉급, 여전한 할머니의 약값, 발생될 엄마의 치료비……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토록 잿빛이었던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뭐랄까, 전지가 떨어진 계산기의 꺼진 액정과 같은, 그런 잿빛이었다. 이제, 계산이 안 나온다. 나도, 계산이 서질 않았다. 불 꺼진 병원의 비상계단에서, 나는 코치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학을 했던 답임은 비교적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힘내거라. 내가 잘, 처리해주마. 해서 나는 1교시를 빼먹는 학생이 되었고, 덕분에 다시금 푸시맨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전 인류의 물결을 감당해야 했고, 그 속에서 마치 부유하는 미역 줄기와도 같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일쑤였다.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버지 그때 점심을 어떻게 했을까? 굶은 걸까? 즉, 도시락의 무게만큼 가벼워진 아버지를 나는 밀고, 또 밀었다. 그 가을의 찬바람 속에서 내 손에 밀리던 아버지는 때로 웅크렸고, 때로 늘어졌으며, 때로 파닥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문득,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코치 형은 이런저런 알바 자리들을 서슴없이 나에게 인계해주었다. 고마워 형. 나는 목각(木刻)의 기러기 인형처럼 딱딱하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실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새로 전지를 갈아 끼운 계산기의 액정에서, 새롭고 소소한 액수의 숫자들이 깜박깜박 빠르게 점멸하는 나날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그런 잿빛의 눈동자를 나는 보았다. 아버지와 색이 같은 두 개의 동심원, 나는 결국 아버지의 연산(演算)이었다. 3.1415926535897…… 그리고

편의점의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다.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점점 수작이 떼먹자는 수작이었다. 옥신각신하던 차에 그만 밀었는데, 나도 놀랄 만큼이나 한참을 날아갔다. 되레 허릴 다쳤다는 둥 고소를 한다는 둥 난리를 쳤는데 이 역시 코치 형이 해결해주었다. 작은 소리로 잠시 애길 했을 뿐인데, 사장이 나오더니 돈을 주었다. 아니, 뿌렸다. 줘. 너무나 담담한 코치 형이 없었더라면, 또 한바탕 푸시를 할 뻔했었다. 액수는 맞니? 천 원이 모자라요. 저기, 천 원 모자랍니다. 코치 형이 크게 소리질렀다.

이상하게 그날 아침-나는 아버지를 아주 거칠게, 그렇게, 밀었다. 부끄럽지만, 그런 기분이었다. 아마도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서졌지, 그래서겠지. 애써 자위를 해봤자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승일아, 잠깐만…… 잠깐만. 아주 잠깐, 아버지의 신음이 내 귓속을 비집고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온 아버지는, 그러나 그날 밤 이런저런 사정들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요는, 산수에 관한 것이었다. 점점 회사가 힘들어진단.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미안한데, 당분간은 함께 좀 고생을 하자.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애기했다. 미안해하던 아버지를 다음날 또 마주했는데-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밀지 못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중략]

###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금성인들은 좋겠다. 그래 겨울엔 흑한이 닥쳐,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정보산업고(情報產業高)의 겨울방학은 생각보다 가혹해서, 그런 상념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긴긴 겨울, 여전히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이른 아침의 전철역에서 늦은 밤까지의 갈빗집 주방, 또 새벽엔 세 구역의 아파트를 돌며-신문을 돌렸다. 파아, 하아. 떠오르는 입김과 옷 속의 땀. 돌이켜보면, 부근의 어느 지붕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기분이다. 금성인의, 시각 같다.

새벽의 전철은 늘 은하철도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금성의 누군가로부터 추궁을 받는 다 해도, 과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새벽은 광활하고 캄캄했으며, 흑한의 공기는 언제나 거칠었다. 말 그대로 천자문 집宇 집宙, 넓을洪 거칠荒. 그리고 나는, 혼자였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겠지,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겠지. 구일과 구로를 지나 신도림으로 이어지는 선로의 어둠 속에서, 나는 늘 흔들리며 생각했다. 조금씩, 열차는 흔들렸고, 조금씩, 마음도 흔들렸다. 삶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이다.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바를 정리한 코치 형은 떼다방의 직원이 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람이 달라졌다. 비록 중고지만 승용차를 구입했고, 돈의 씹씹이가 예전과 사뭇 달랐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알던 코치 형과 유사한 인물이란 느낌만 간간이 들 뿐이었다. 유사한 것을 무사하다고 말할 순 없는 거니까, 즉 그런 거니까. 감독은 여전했지만, 그 역시도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들리는 말로는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 후 열흘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그 후 다시금 출근을 했다. 본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배워야 해. 언젠가 불쑥 그런 말을 하기에 나는 아, 네, 라고 짧게 끊어 대답해주었다. 또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요즘 ‘칙촉’이란 게 나왔는데 먹어봤나? 넌 ‘오 에스’와 ‘칙촉’ 중 어떤 게 맛있냐고 묻길래-아, 예예. 그리고

그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사고가 아닌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사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행적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였으므로, 당연히 나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었다. 그날 아침 전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전철역에서요? 네, 아버지는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만나는 편인데, 늘 그랬듯 그날도 역시 아버지를 밀어드렸습니다. 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썄요…… 그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하고 몸을 한 번 뺐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나요? 네, 아마도.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힘드신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열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순순히 타던가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집으로도 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실종. 경찰은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될 리 없었다. 그 후의 기억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상대로 밀렸던 두 달치 임금을 받아냈고, 이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고, 이런저런 서류를 마련해 할머니를 관인 ‘사랑의 집’에 보내고, 이 또한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으며, 경찰서와 병원을 꾸준히 오고, 가고, 또 여전히 일을 했다, 해야만 했다. 때로 새벽의 전철에 지친 몸을 실으면, 그래서 나는 저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몸을 떠밀리는 기분이었다. 밀지 마, 그만 밀라니까. 왜 세상은 온통 푸시인가. 왜 세상엔 ‘푸시맨’만 있고 ‘풀맨’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열차는

삶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가. 그렇게

흔들리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봄은 금성인과 화성인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이나 근사한 계절이었다. 끝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어머니의 의식이 기적처럼 돌아왔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도,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나는 울었다. 글썄 그 정도의 서러운 이유라면, 누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재활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 의사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금 숨을 트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할머니란 짐을 털게 된 까닭으로, 또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병원비를 번 까닭으로 그대로, 그렇게. 근처의 지붕에서 지켜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잔디의 작은 싹이 움을 틔 모습과 비슷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살아, 있다. 무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단 것은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인가.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말이다.

봄이 얼마나 완전한 날이었을까. 일을 마친 나는 잠깐 역사의 벤치에서 졸다가 깊고, 완전한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여느 때처럼 미린다 한 잔을 마시고 나자, 탄산수처럼 쏘는 느낌의 봄별이 피부를 찔러왔다. 당연히 ‘얼음 없음’인 봄별 속에는 그래서 그만큼의 온기가, 더 스며 있었다. 아아, 마치 기지개처럼 나는 다릴 뻗고 고개를 젖혔다. 여전히 구름은 흘러가고 지구는 돌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건너편 플랫폼의 지붕 부근에 떠 있는 이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것은 설마

기린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을 입고, 플랫폼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오전의 역사는 한가했고,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의

표정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거야 원, 누군가 한 사람은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란 생각으로 나는 기린을 예의, 주시했다.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앉았다. 그것은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분리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기린이 아버지란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미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다행히 기린은 꿈쩍 않고 앉아 있었다. 주저주저 그 곁으로 다가간 나는, 주저주저 기린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막상 앉으니-기린은 앉은기가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하고 무신경한 느낌이었다. 기린은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는 혼자 울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 곧장 나는 가슴속의 말을 꺼냈고, 기린의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려놓았다. 떨리는 손바닥을 통해, 손으로 밀어본 사람만이 기억하는 양복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져왔다. 구름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기린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린의 무릎을 흔들던 나는, 결국 반응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집안의 근황을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소식과 어머니의 회복, 그리고 나는 부동산 일을 배울 수도 있다, 선배가 자꾸 함께 일을 하자고 한다, 자리가, 자리가 있다고 한다. 경제도 차차 좋아질 거라고 한다, 무디슨가 어디서 우리의 신용등급이 또 한 계단 올라섰대요, 좋아졌어요. 그러니 돌아오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구름의 그림자가 또 빠르게 지나갔다. 아버지,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아버지 맞죠? 그것만 얘기해줘요.

무관심한, 그러나 잿빛의 눈동자가 이윽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기린은 자신의 앞발을 내 손 위에 포개더니,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 카스테라(박민규), pp. 69-93

## ● 참고문헌

- 고봉준(2010), 『유령들』, 천년의 시작.
- 구리 료헤이(2015), 『우동 한그릇』, 청조사.
- 박민규(2013), 『카스테라』, 문학동네.
- 신경숙(2008), 『엄마를 부탁해』, 창비.
- 진은영(2003),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 지성사.
- 진은영, 김경희(2019), 『문학, 내 마음의 무늬 읽기』, 엑스북스
- 차준철(2020), [여적]지하철 1호선, 경향신문. 2020.3.12.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22044005&code=99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22044005&code=990201))
- 한명섭(2020), 지하철 알바 '푸쉬맨', 한국대학신문. 2020.5.29.  
(URL: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089>)
- KBS다큐극장, IMF 경제위기로 추웠던 그 겨울의 이야기(1997년). 2020.1.28.  
(<https://www.youtube.com/watch?v=07Qz7EFxIMY>)